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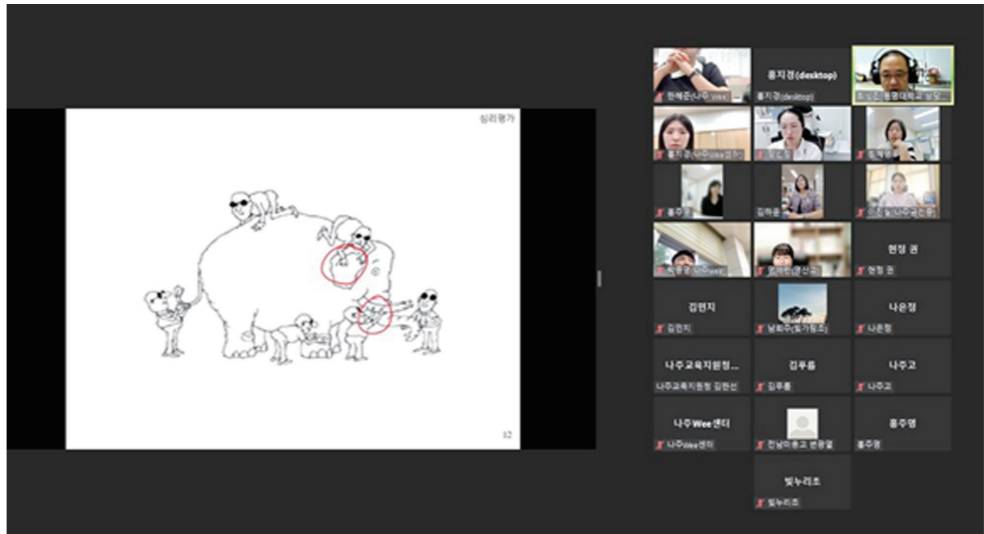
나주교육청 Wee센터, 전문상담인력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관내 Wee클래스·Wee센터 전문상담교사 등 총 34명 대상 운영 '학교상담에서의 심리검사의 활용' 주제, 최성진 교수 강의 진행

나주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관내 Wee클래스 및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총 34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온라인(Zoom)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는 '학교상담에서의 심리검사의 활용'을 주제로 부산 동명대학교 최성진 교수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Rorschach, TAT, GBT 등의 심리검사 도구는 심리평가를 목적으로 활용돼 왔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학생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상담 장면에서 학생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통찰할 수 있게 하여 더욱 밀착된 상담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전문상담교사는 "언어 상담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는데 검사 도구를 매체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보다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개입 방법과 실습 시간이 있어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변정빈 교육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위기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10대의 자살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속적인 관내 전문상담인력의 역량강화를 통해 나주 학생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회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나주교육청 Wee센터는 집단상담에서 활용 가능한 '교우관계 갈등 예방을 위한 소시오그램의 활용'을 주제로 다음 연수를 계획



하고 있다.

나주=송준표 기자

목포서산초, 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그림자극장 운영

'오필리아의 그림자극장'에서 체험 및 참여 시간 마련



목포서산초등학교는 지난 8월 28일, 9월 8일 까지 2회에 걸쳐 전교생을 대상으로 '오필리아의 그림자극장'에 함께 체험하고 참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림자극장 체험은 교육연구전문가가 팀을 이뤄 무대미술 뿐만 아니라 창의적 예술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표현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1~2차시는 방송 스토리 수업으로 기본적인 발성, 호흡, 손 인형 조작법, 말하는 인형 만들기 등으로 이루어졌다. 3~4차시는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그림자극의 이론과 실재를 알고, 공연에 등장할 아기 고래의 친구들을 생활 속의 재활용품과 자연물을 활용하여 만들어 보면서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길러 주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그림자극장 체험활동으로 목포서산초등학교 학생들은 보다 깊이 있고 폭넓은 문화예술의 세계를 경험하여 예술적 감수성과 자기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고흥 백양초, 4·6학년 학생수련활동 실시



고흥 백양초등학교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나로도학생수련장으로 수련활동을 다녀왔다. 평소 학교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조화로운 심성과 협동·봉사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5학년이 없어 4,6학년 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수련장과 거리가 가까운 덕분에 여유있게 도착하여 함께 활동할 미암초와 죽곡초 학생들을 기다려 세 학교가 같이 안전교육을 하였다. 해변에서 할 것을 날씨가 무더워 힘들까 봐 강당에서 구명조끼 착용법을 시작으로 구명조끼를 입고 배에서 탈출하는 이함 방법, 파도가 세계 질 때 팔짱 끼고 모여뜨기 등을 익히고 오후에는 실제로 바닷가에 나가 장비를 갖춘 보트 시합을 할 때는 젓 먹던 힘까지 내어 노를 저었다. 또한, 이론으로 익힌 바다 생존수영을 능숙하게 한 덕분에 자유시간의 달콤함도 만끽하였다. 다운 마무리를 하였다.

백양초 4학년 오나연 학생은 "처음 온 수련 활동인데 힘들기도 했지만 재미있었다. 활동이 다 즐거웠지만 레크레이션이 가장 좋았다. 가수 이름 맞추기에서 (카즈하)는 은수 언니가 팀을 짚어서 맞출 수 있었고, 춤은 평소 유튜브에서 관심을 가지고 외워서 춤추었는데 나중에 부끄러웠다. 밥하기 활동은 언니들이 해서 맛있었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제일 높은 학년이 되니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된다."라고 말했다. 학생수련장 주변의 300년 된 소나무를 보면서 어려운 조건에서도 깨끗하게 이겨나가야 함을 느꼈으며, 해양 활동 속에서 나 혼자서는 절대 멀리 갈 수 없음을 깨닫고 더불어 살아가는 중요성도 경험한 나로도 학생수련장 체험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고흥=기동취재본부

광양 광영고, 학생이 스스로 만드는 즐거운 학교

광영고 학생자치회 주관, 버스킹 공연 행사 운영

광양 광영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스스로 만드는 즐거운 학교를 위한 버스킹 공연 행사가 진행되었다. 광영고등학교 학생생활안전부와 광영고등학교 학생자치회에서 9월 7일, 8일 이틀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였다. 지난 7일 점심시간에는 체육관에서 댄스동

아리(카르페디엠)의 멋진 댄스 공연이 이루어졌고, 8일 점심시간에는 급식실 앞 공터에서 밴드동아리(리버스)의 즐거운 밴드 공연이 이루어졌다. 이번 공연은 2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즐거운 학교 생활'과 '학교 폭력없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광영고등학교 학생자치회가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광양=김현근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